

 		<h1>보도자료</h1> <p>2019. 12. 11.(수) 배포</p>	
보도일	<p><b>2019. 12. 12.(목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</b>  <b>인터넷·방송·통신 12. 11.(수) 14:00 이후 보도 가능</b></p>		
담당과	교육협력과	담당자	<p>과 장 김 석 (☎ 044-203-6466)                  사무관 김병철 (☎ 044-203-6348)                  교육연구사 한유화 (☎ 044-203-6463)</p>

## 교육부,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교섭·협약 합의

- ◆ 2018-2019 교육부-한국교총 본교섭·협약위원회(조인식) 개최
- ◆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등을 위한 25개조 30개항 교섭·협약 합의

- 교육부(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)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(회장 하윤수, 이하 한국교총)는 12월 11일(수) 정부서울청사에서 「2018-2019 본교섭·협약위원회(조인식)」을 개최했다.
  - 교육부와 한국교총은 1992년 이후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지위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교섭·협약을 추진해왔으며, 올해로 30회째를 맞는다.
  - 이번 합의는 한국교총의 교섭·협약 요구(2019년 1월, 2월)에 따라 본교섭·협약위원회(개회식)와 수차례의 실무협의를 거쳐 이루어졌으며 조인식에서 양측 대표의 합의서 서명 및 교환이 진행되었다.
- 이번 합의 내용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, 전문성 강화, 복지 및 처우 개선, 근무여건 개선 등 총 25개조 30개항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  - 교육부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활동 매뉴얼을 마련하여 보급한다.

- 또한, 교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교육부는 수능감독교사에 대한 수당 인상과 수능시험 감독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사항에 대한 법률·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에 힘쓴다.
  - 그리고, 특수교원의 근무여건과 교육현장의 개선을 위해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을 대폭 증설하기로 하였다.
-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“교원의 권익을 높이고 근무여건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하며, 합의한 내용을 상호 성실하게 이행하여 현장의 선생님들께서 긍지와 사명감을 갖고 더욱 활기차게 교육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.”라고 말했다.

[붙임] 2018~2019 「교육부-한국교총」 본교섭·협약(조인식) 개요



## 2018-2019 「교육부-한국교총」 본교섭·협약조인식 개요

### □ 2018-2019 본교섭·협약(조인식) 개요

- 일 시 : '19.12.11(수) 14:00~14:30
- 장 소 : 정부서울청사 회의실(301호)
- 참 석 : 총 17명
  - (교육부) 부총리, 학교혁신지원실장, 학교혁신정책관 등 8명
  - (한국교총) 하운수 회장, 부회장, 정책본부장 등 9명
- 내 용 : 본교섭·협약 조인 및 교환

### □ 세부 추진일정(안)

일 정	주요 내용	비고
14:00~14:02(2')	○ 개회 및 국민의례	
14:02~14:05(3')	○ 양측 교섭위원 소개	
14:05~14:15(10')	○ 양측 대표 인사말	
14:15~14:20(5')	○ 교섭·협약 경과보고	
14:20~14:25(5')	○ 합의서 서명 및 교환	
14:25~14:30(5')	○ 기념 촬영	